칼 럼

임 성 욱 시인 · 사회복지학박사

이전투구보다는 출마 접은 한 선량 본받길

"사랑과 영혼". 많은 사람들이 관람했다. 작품성이나 예술성이 결코 뛰어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대중성이 있었다. 그래서 성공한 영화다.

특히 가장 큰 혜택을 본 배우는 '몰리 젠슨' 역의 '데미 무어'와 '오다 매 브라운' 역의 '우피 골드버그'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무명에 가까울 정도였다. 그런데 이 영화로 일약 스타덤에 올라선 것이다.

참으로 '인생사'란 알 수 없는 것 같다. 지금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일부 야당은 통합해 제3당을 형성했다. 서울에서는 시장후보까지 냈다. 안철수 전 대표가. 모든 정당이 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위해 뛰고 있다. 무차별적인 정치홍보 문자도 판을 치고 있다. 온통 정치놀음뿐인 것 같다.

여하튼 이 과정에서 정의롭고, 대중을 위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이 당선되길 바란다. 그런데 불행히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두각을 나타내는 경우도 많았다는 사실이다. 이번 선거에서도 이 점에 있어서는 이변이 없을 거라 생각된다. 큰 판은 큰 판대로 작은 판은 작은 판대로. 우리 지역 역시 마찬가지다. 각자들 공약을 발표하느라 바쁘다. 마타도어도 여전하다. 각종 괴변을 토해가면서 상대방 흠집 내기에 열을 올리는 것도 예나지금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부류들은 애당초부터 상대방 말을 들으려 하지도 않는다. 오로지 자신의 말만 할 뿐이다. 마치 진실 같은 그리고 합당한 것 같은 이유를 잘도 붙이면서. 때문에 대다수 유권자들은 그 진위여부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이 과정에서 상당수 유권자들은 혈연, 학연, 지연 등 갖가지 연줄에 따라 투표하는 경우가 많다. 그야말로 출마자와 유권자의 부적 어울림 합창곡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당선된 사람들, 그들이 모여서 커다랗게 형성된 족당들, 과연 유권자들에게 무엇을 해주겠는가.

그동안 무엇을 해줬던가. 대부분의 경우 당선되고 나면 자신들의 안위 보살피기에만 몰두했다. 모든 권역의 당선자들이 거의 입신양명과 그것을 지키기에만 급급했다. 6·13 지방선거일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우리 지역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 및 기초의원들은 그동안 무엇을 했던가. 온갖 꿋발을 부렸으면서도. 그들의 연봉만 해도 상당하다. 그에 비해 한 일은 별로 없다. 중론이다.

어떤 의원의 경우는 1년에 조례를 한 건도 제정 못한 경우도 있었다. 겨우 회의에 참석해 투표나 하고. 그런데도 또 출마한다고 난리다. 이렇게 엉망진창인데도 몇 선을 하는 경우도 있다. 참으로 어이없지 않은가. 능력은 없으면서 온갖 감언이설로 "사랑과 영혼" 처럼 흥행에만 성공한 꼴이다. 하지만 이 영화는 어쨌든 감동을 줬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불쾌감만 주고 있다. 때문에 우리 지역 유권자들은 현직들이 출마했다면 재임 동안 무엇을 했는지를 잘 살펴봐야 할 것이다. 특히 재임 중 좋지 못한 사건에 휘말렸던 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존재감이 없었던 자, 조례 제정 건수가 별로인 자, 지역주민을 잘 찾아보지 않았던 자 등은 일단 제외시켜야 할 것이다.

비재임 출마자들의 경우에도 출마를 업으로 알고 항상 출마하는 자, 품행이방정치 못한 자, 이력과 집안내력 등 평판이 별로 좋지 않은 자, 정치 철에만 나타나는 철새족 등은 더더욱 세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실 이렇게 검증해도 출마자들을 잘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순간, 선당후사 정신으로 전남지사 출마를 접은 한 선량의 지역민을 위한 충심어린 우보가 그리워지는 것은 왜일까.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다.

社 說

주먹거리 가격 안정시켜야

쌀과 빵 가격이 일제히 상승하며 주 먹거리에 비상이 걸렸다. 채소류와 축산물은 가격이 안정세로 돌아섰지만 농수산물 물가는 여전히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정부는 농수산물 물가의 고공행진에도 불구하고 축산물 및 채소류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앞으로 물가 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8년 3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농산물 물가는 전년동월대비 4.7% 상승했으며, 수산물은 5.2% 상승해 물가 상승을 이끌었다.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1.3%보다 서너배 높은 수준이다.

특히 쌀과 빵 물가가 크게 상승했다. 쌀은 1년 전보다 26.4%나 올라 1981년 9월(35.5%) 이후 37년 6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빵 물가도 지난해 같은 달보다 6.0% 올라 2014년 8월(6.8%) 이후 3년 7개월 만에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이는 지난해 가뭄 등으로 곡물 가격이 크게 상승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쌀은 지난해 가뭄으로 생산량이 크게 줄면서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 지난해 쌀 20㎏ 가격은 3만8300원으로 전년(3만25000원)보다 5900원(18%) 올랐다.

빵의 주재료인 밀가루(2.2%)도 2014년 9월(3.0%) 이후 3년 8개월 만에 최대치로 상승했다.

이밖에 현미(11.1%), 찹쌀(12.7%), 보리쌀(7.4%), 콩(12.9%), 혼식곡(7.9%) 등 대부분의 곡물이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장바구니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1.1% 상승했으며, 밥상물가로 불리는 신선식품지수는 같은 기간 1.0% 상승했다.

정부는 소비자단체와 연계해 물가감시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 고

이 을 신 무안경찰서장

어린이 교통안전구역, 스쿨존을 지키자!

신학기를 맞아,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차량 운전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해마다 개학기만 되면 어린이 교통사고가 크게 증가하는데,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집계에 따르면, 매년 4월이면 12세 이하 어린이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1~2월 대비 50~60% 이상 증가하여 매우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다.

통상 1~2월은 방학기간이며, 쌀쌀한 날씨 때문에 어린이들의 외부활동이 많지 않지만, 3월부터는 개학과 더불어 외부활동이 급증하고, 4, 5월부터는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갖추어지고, 학교 측에서 진행하는 각종 체험학습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교통사고 발생률이 최고조에 이른다.

또한 등교시간 보다는 하교시간에, 평일보다는 주말에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운전자들이 상대적으로 집중력이 떨어지는 시기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어린이교통사고의 원인으로는,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과 안전의무 불이행 같은 안전의식 결여,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하고 돌발행동이 잦은 어린이들의 행동양태,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리는 불법 주정차, 안전 구조물의 미설치 및 도로 구조상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다.

이러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운전자들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지정된 특별구역으로,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정문에서 반경 300m(최대 500m) 이내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제한 속도를 30km/h 이하로 지정하고 있다.

이 구간을 운전할 때는 속도를 30km/h 이하로 운전하는 것은 물론, 언제든지 어린이들이 도로에 불쑥 나타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평소보다 훨씬 주의 하여 통과해야 한다.

두 번째로, 어린이 교통안전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어린이들의 시야각이 어른의 60% 수준에 불과하며 단순한 행동양태를 가지고 있어,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로 변경됨과 동시에 좌우를 살피지 못하고 앞만 보고 횡단보도로 뛰어나오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등·하교 시간대 집중적인 현장홍보, 맞춤형 온라인 콘텐츠 제작·배포, 체험학습 위주의 현장감 있는 교통사고예방 교육을 통하여 어린이들에게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어야 한다.

추가로 등·하교시간이나, 체험학습을 나갈 때는 눈에 잘 띄는 밝은 옷을 착용 하도록 교육하고, 운전자들의 눈에 잘 띄는 가방이나 우산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반사경 설치 등 안전시설물을 확충하고, 도로 구조상 시야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는지 점검하고 개선해나가야 하며, 구역 내 불법주정차 또한 집중 계도·단속을 통하여 해결해 나가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시 일반도로에서의 경우보다 2배 많은 범칙금,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11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종합보험 가입 유·무를 불문하고 형사처분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요구된다.

교통안전시설물을 확충은 물론,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운전자들 스스로가 교통안전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모두가 평소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보행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 노력한다면 어린이 교통사고는 분명히 줄어 들 것이다.

이제는 '어린이가 먼저'인 올바른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통해 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날을 기대해 본다.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배우는 千 字 文

景 볕 경
行 다닐 행
維 벼리 유
賢 어질 현

景 行 維 賢

▷뜻 : 행실(行實)을 훌륭하게 하고 당당(堂堂)하게 행(行)하면 어진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함.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湖南新聞
대표전화 (062) 224-5800
편집국 (062) 222-5547
팩스 (062) 222-5548
광고국 (062) 222-5544

본 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번지 정도프라자 5층)
서울 취재 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명예회장 이신원 회장 정재조
발행·편집인 겸 부사장 최산순
총괄이사 논설실장 이홍재 편집국장 강서원

1946년 3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